새 시대의 신랑으로 오신 주님

말씀 시리즈: 마가복음 강해 13
본문: 마가복음 2:18-22

서론

본 단락은 마가복음 2:1-3:6에 이어지는 논쟁 기사 중 하나로, 중풍병자 치유, 세리 레위 부르심, 죄인들과의 식탁 교제에 이어 금식을 둘러싼 질문이 제기된다.

갈릴리 논쟁 5가지 (마가복음 2:1-3:6)

1. 중풍병자 죄 사함 논쟁(막 2:1-12)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심. 서기관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느냐”고 반발함.
2. 세리와 죄인들과의 식사 논쟁 (막 2:13-17)
예수께서 레위(세리)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심. 바리새인들은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문제 삼음.
3. 금식 논쟁 (막 2:18-22)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음. 예수께서는 신랑 비유와 생배 조각, 새 포도주 비유로 응답하심.
4. 안식일 밀 이삭 논쟁 (막 2:23-28)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자 문제 제기됨. 예수께서는 다윗의 사례를 들며 안식일의 본뜻을 밝히심.
5. 안식일 병 고침 논쟁 (막 3:1-6)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심. 바리새인들은 이를 고발하려 함.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묻는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당대 경건의 기준을 바탕으로 한 공개적이고 도전적인 문제 제기였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은 금식과 절제를 신앙의 표준으로 삼았으나, 예수의 제자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며 새로운 공동체의 삶을 보여주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금식은 단순한 개인적 습관이 아니라 **공동체적 경건과 민족적 기억을 표현하는 중요한 행위**였다. 특히 이 질문은 일상적인 개인 금식을 기준으로 예수의 공동체를 평가하려는 시도였으며, 기존 경건의 틀과 예수 사역 사이의 긴장을 드러낸다. 이번 본문 연구는 이러한 질문이 제기된 배경과 의미를 살피며, 금식과 경건의 참된 방향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 본론: 본문 주해1

Mark 2:18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 경건의 기준으로 제기된 질문

오늘 본문은 사건의 구체적인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밝히지 않은 채,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논쟁을 시작한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 그는 당시 옥에 갇혀 있었으나 그의 제자 공동체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스승의 금욕적이고 회개 중심적인 사역을 계승하고 있었을 것이다. 한편 **바리새인들**은 율법 해석과 경건 생활에 엄격한 집단으로, 당대 유대 사회에서 경건한 지도층으로 인정받던 부류였다.

이처럼 종교적 권위를 지닌 두 집단이 금식을 실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이 제기된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의 표현이 아니다. 금식을 경건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비추어 예수의 제자들을 평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당시에는 제자의 행위가 곧 스승의 가르침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제자들에 대한 지적이면서 동시에 **예수를 향한 문제 제기**였다. 곧, 예수의 가르침과 사역이 기존에 익숙한 경건의 틀과 왜 다른가를 묻는 공개적이고 도전적인 질문이었다.

알렉상드르 비다,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심」
(Jesus Eats with Sinners and Tax Collectors, 19세기 판화)

2) 서로 다른 경건 이해에서 비롯된 긴장

이 사건은 앞 단락의 식탁 교제 장면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이는 당시 경건 전통의 관점에서 볼 때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행동이었다. 금식과 절제를 강조하던 분위기 속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먹고 마시는 공동체**로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대비가 질문을 촉발한 배경이 된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과연 누구에 의해 제기된 것인가?**

마가복음은 **'사람들이'** 예수께 질문했다고만 기록하여 질문자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9:14은 이 질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의해 제기되었음을 전한다.[1] 이는 요한 공동체와 예수 공동체 사이에 일정한 신학적 긴장이 존재했음을 보여 준다. 세례 요한은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며 금욕적 삶을 강조하였고, 그의 제자들 역시 그러한 경건 형태를 따르고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그들의 스승은 감옥에 갇혀 있는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은 쉽게 납득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자신들은 금식과 회개로 응답하고 있는데, 예수 공동체는 잔치와 식탁 교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생활 방식의 차이를 넘어, 경건을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2. 유대인들의 금식 배경

그렇다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금식'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가?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크게 두 가지 범주에서 행해졌다. 첫째는 절기에 행하는 **공동체적 금식**이며, 둘째는 개인적으로 행하는 **자발적 금식**이다.

1) 절기에 행하는 공동체적 금식

① 대속죄일의 금식 : 가장 대표적인 절기 금식은 모세 율법에 근거한 **대속죄일**이다. 레위기 16장과 23장에 근거한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죄 사함을 구하는 날이었다. 일반적인 죄는 상시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 처리되었지만, 대속죄일은 공동체 전체의 죄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특별한 날이었다.

이 점에서 대속죄일은 일상의 제사와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일상적인 속죄 제사가 반복적으로 드려졌다면, 대속죄일은 일정한 시점에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우는 날이었다. 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영적 대청소'라 할 수 있다. 평소에도 정결 예식이 있었지만, 공동체 전체를 포괄적으로 정비하는 날이 필요했던 것이다.

② 포로 이후 형성된 민족적 금식 :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경험한 민족적 비극을 기억하기 위한 금식일들이 형성되었다. 이는 율법에 직접 규정된 절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공동체 안에서 자리 잡은 금식 전통이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된 날, 성전이 파괴된 날, 유다 총독 그달랴가 암살된 사건 등 국가적 재난과 관련된 날들이 금식일로 지정되었다. 이로 인해 4월, 5월, 7월, 10월 등 여러 시기에 금식이 시행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애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기억과 회개의 행위였다.

---

[1] Matt. 9:14 그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2) 개인적 경건으로서의 금식

절기와는 별도로, 개인이 회개하거나 간구할 일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금식을 행하기도 하였다. 이는 **경건 전통 속에서 발전한 실천**이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절기와 무관하게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 관습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금식은 본래 개인적 경건 행위였으나, 점차 **경건의 표준처럼 인식**되기도 하였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으며, 종교적 정체성을 통해 민족적 자부심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엄격한 금식과 율법 준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신앙적 표현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금식은 단순한 개인 경건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영적 각성과 회복을 지향하는 행위로 확대되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본문에 적용되는 금식의 성격과 문제의 핵심

이 두 가지 금식 중 요한의 제자들이 문제 삼은 것은 후자인 **'개인적 금식'**으로 보인다. 마가는 이 사건의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데, 이는 특정 절기에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제기된 질문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본문의 금식은 대속죄일과 같은 국가적 절기 금식이 아니라, 당시 경건의 척도로 여겨지던 **일상적·개인적 금식 관습**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주님과 제자들이 절기에 관한 금식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이스라엘 사회의 율법 규범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충분히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금식은 본래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경건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제자들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은, 사실상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 삼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고수해 온 전통과 경건의 기준을 당연하게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게도 적용하려 했으며, **자신들의 관습을 절대적 '경건의 표준'으로 삼아 예수 공동체를 평가한 것이다.**

또한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 자체도 본래 금식의 목적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 금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행위**이지만, "다른 이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하지 않느냐?"라는 비교 질문은, 경건의 초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타인과의 비교'로 변질시킨다. 경건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내적 고백이어야 하며, 결코 타인과의 우열을 가리거나 정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들의 잘못된 경건 기준 적용과 비교 중심적 질문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보다 인간적 판단과 전통에 치우친 사고를 드러낸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건 관습을 절대화하며 예수와 제자들의 삶을 평가했지만, 이는 경건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다. 금식과 같은 신앙 행위는 본래 하나님과의 내적 교제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평가의 도구로 삼는 순간,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경건의 특정 형태를 '표준'처럼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공동체의 신앙 분위기는 기쁨과 은혜 중심인가, 아니면 비교와 평가 중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 서 있는가?
나의 예배와 봉사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인가, 아니면 인정받기 위한 의무인가?

| 본론: 본문 주해2

Mark 2:19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Mark 2:20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Mark 2:21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해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Mark 2:22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1.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금식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신다. 금식은 구약 전통 안에서 정당한 경건 행위였으며,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광야에서 사십 일을 금식하셨다. 그러므로 여기서 문제는 금식의 정당성 여부가 아니다. 주님께서 지적하신 핵심은 **'때'**이다.

예수는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신다. 유대 사회에서 혼인 잔치는 기쁨과 환대의 자리였고, 그 기간은 **공동체적 즐거움이 강조되는 시간**이었다. 그 자리에서 금식은 어울리지 않는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손님이 슬픔의 표지인 금식을 행하는 것은 상황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비유는 단순한 생활의 예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신랑으로 오셨음**을 선언하고 계신다. **금식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표지였다.** 그러나 이제 그 나라는 신랑 되신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죄인이 용서받고, 병든 자가 회복되며, 귀신이 떠나간 사건들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드러내는 징표였다. 기다림의 금식은 도래의 기쁨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금은 애통의 시간이 아니라, 신랑과 함께 기뻐할 시간이다.

그러나 주님은 이어서 뜻밖의 말씀을 덧붙이신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일반적으로 혼인 잔치가 끝나면 손님이 떠나지, 신랑이 떠나지 않는다. 신랑이 '빼앗긴다'는 표현은 **비정상적이며 강제적인 상황을 암시**한다. 이는 장차 있을 예수의 수난과 십자가 죽음을 가리킨다. 이는 마가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암시적 수난 예고**라 할 수 있다. **그 날에는 제자들이 금식하게 될 것이다.**

2. 두 비유

이어지는 두 비유는 앞선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한다.

첫째, 생베 조각[2]과 낡은 옷의 비유이다.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덧붙이면 세탁 과정에서 새 천이 줄어들어 낡은 옷을 더 크게 찢어 버린다. 결과적으로 새 천도, 낡은 옷도 모두 손상된다. **둘째,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이다.** 새 포도주는 발효 과정에서 팽창한다. 이미 탄력을 잃은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그것이 터져 버린다. 결국 포도주도 잃고 부대도 잃게 된다.

두 비유의 핵심은 분명하다. '**옛 틀은 새 시대를 담아낼 수 없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보완이나 부분적 개혁이 아니라 구속사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이전의 경건 체계와 관념을 절대화한 채 그 나라를 이해하려 한다면, 결국 새로움도 잃고 옛 질서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게 된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이라는 **경건의 형식**을 붙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형식이 본래 지향하던 목적**,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메시아의 도래는 이미 예수 안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새 포도주가 부어지고 있음에도 낡은 가죽 부대를 고수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태도 속에서 두 비유의 경고가 드러난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지금 중요한 것은 기존 형식을 유지하는 일이 아니라, 그 새 시대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음을 깨닫고 그 도래를 기뻐했어야 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낡은 관념 속에 가두려 한다면, 형식을 지키려는 열심이 오히려 그 형식이 가리키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 내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나의 경건한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가?
나는 신앙의 형식 자체를 지키는 데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그 형식이 가리키는 본질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로운 변화와 순종을 요구하실 때, 나는 익숙한 틀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때, 나는 그것을 담아낼 '새 부대'와 같은 유연한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2] 생베로 번역된 헬라어 ἄγναφος(아그나포스)는 '아직 가공되지 않은, 세탁되지 않은' 상태의 **새 천**을 의미한다. 당시 직물은 세탁과 사용을 거치며 수축되었기 때문에, 수축되지 않은 새 천을 낡은 옷에 덧대면 세탁 시 긴장 차이로 인해 더 크게 찢어질 수 있었다.

| 결론: 신랑과 함께하는 새 시대

오늘 본문에서 제기된 질문은 단순히 '금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질문의 이면에는 **자신들이 익숙하게 지켜 온 경건의 형태를 기준으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평가하려는 시도**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금식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시면서도, 그들이 놓치고 있는 더 중요한 사실을 드러내셨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셨다. 유대 사회에서 혼인 잔치는 기쁨과 환대의 자리였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슬픔의 표시인 금식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이미 자신의 사역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신다. 죄인이 용서받고, 병든 자가 회복되며, 소외된 자들이 공동체 안으로 초대되는 사건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징표**였다. 그러므로 지금은 단순히 금식의 형식을 지키는 시간이 아니라, 신랑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시간이었다.

이어지는 두 비유는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한다. 새 천을 낡은 옷에 덧대면 옷이 더 찢어지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부대가 터진다. 이는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이전의 종교적 틀 속에 억지로 담아내려 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의 형식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다.

오늘날 교회 역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의 형식과 관습을 **지나치게 절대화**하며 그것을 경건의 기준으로 삼기 쉽다. 그러나 신앙의 중심은 특정한 종교적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가리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금식이든 예배이든 봉사이든 그것이 하나님과의 살아 있는 관계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면, 형식만 남고 본질은 흐려질 수 있다.

예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백성을 신랑의 잔치로 부르고 계신다. 교회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익숙한 종교적 틀을 반복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새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 은혜를 담아낼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 신앙의 중심에 형식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Quiz

1.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 질문을 받은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2. 마가복음은 질문한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① 바리새인들이　　② 요한의 제자들이
③ 서기관들이　　④ 사람들이

3.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9:14에 따르면 이 질문은 주로 누구에 의해 제기되었습니까?

① 제사장들　　② 세례 요한의 제자들
③ 사두개인들　　④ 로마 군인들

4. 예수께서는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시며 금식 문제를 설명하셨습니까?

① 왕　　② 신랑
③ 목자　　④ 제사장

5. 예수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6. 예수께서는 금식에 대한 질문에 답하시며 어떤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까?

7. 왜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옷이 더 찢어지게 됩니까?

8.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 천과 새 포도주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10.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때 신앙 공동체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